『삼국유사』를 통해본 일연의 역사 인식

朱 甫 暾*

1. 머리말
2. 冊名에 내재된 편찬 의도
3. 體制와 構成으로 본 역사 인식
4. 內容으로 본 역사 인식
5. 맺음말

국문초록

이 글은 『삼국유사』의 체제, 구조 및 내용의 음미를 통하여 일연이 승려로서 이를 편찬하려고 시도한 목적과 배경 및 역사 인식을 더듬어보려는 데서 출발한 것이다. 거기에는 이미 편찬된 기존의 사서에 대한 문제 인식과 함께 개인적인 삶 등이 깊숙이 투영되어 있으리라 여기고서 이를 편목 별로 가려서 논증해보려고 하였다. 그 결과 전체 9개 편목 가운데 왕력과 기이편은 『삼국사기』를, 흥법편 이하 불교 관련 편목은 『해동고승전』을 겨냥해서 편찬하였으며, 마지막에 설정된 피은과 효선의 두 편에는 특별히 자신의 삶의 궤적이 깊숙이 스며들어 있는 것으로 풀이하였다. 그런 점에서 특이한 편목이라 진단할 수가 있다. 그와 함께 『삼국유사』 전편을 통해 각별히 눈길을 끄는 편목은 탑상편이다. 불교 신앙의 두 중심축인 불탑과 불상은 널리 산재하

* 경북대학교 사학과 교수 / bdju@knu.ac.kr

여 실물로서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신라 왕도였던 경주는 발길이 닿는 곳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 일연은 탑상편에 실린 대상의 상당 부분을 몇 차례에 걸쳐 실견하였다. 그 가운데 일연의 역사 인식에 직접적이며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것은 몽골의 병란으로 처참하게 불타버린 護國佛敎의 중심 도량 皇龍寺였다. 그것이 『삼국유사』의 첫머리에 「古朝鮮」를 싣게 한 주된 배경이었다. 곧이어 개창된 조선왕조의 국명이나 통사체체의 출현도 이와 관련이 깊다. 조선 초에 『삼국유사』가 『삼국사기』와 함께 再刊되는 것도 그런 사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일이라 하겠다.

◈ 주제어
삼국유사, 일연, 역사 인식, 탑상편, 삼국사기

1. 머리말

다 아는 바와 같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한국고대사 복원의 주축을 이루는 양대 基本史書이다. 만약 어느 한 쪽이라도 없다면 현재까지 도달한 수준의 한국고대사 복원은 거의 기대하기가 힘들 터이다. 그것은 두 사서의 내용과 근본 성격을 대비해보면 저절로 드러나는 사실이다. 두 사서는 대상으로 삼고 있는 내용에서 현저하게 차이가 나서 서로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삼국사기』가 마치 剝製된 뼈대와 같다면, 『삼국유사』는 그것이 살아 움직이도록 하는 피와 살의 기능을 한다.

『삼국사기』가 왕명을 받아 편찬한 官撰인 반면, 『삼국유사』는 私撰의 역사서이다. 특히 『삼국사기』는 金富軾을 필두로 한 10여 명의 관료 儒學者가 편찬을 맡았으나, 『삼국유사』는 一然이란 승려 한 사람이 편찬하였다는 점에서 근본적 차이를 보인다. 이 점은 두 사서의 성격과 내용이 크게 엇갈리게 하는 動因으로 작용하였다. 두 사서는 동일하게 三國時代를 대상으로 삼았음에도 각각 당대의 입장과 시각에서 정리한 까닭에 매우 다른 모습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었다. 편자들이 특정 측면에서 바라본 한쪽의 측면만을 유난스레 강조함으로써 저절로 놓쳐버린 부분도 적지 않게 생겨난 것이었다. 한국고대사의 복원에서 두 사서 가운데 어느 쪽을 버리고 취하기가 곤란한 相補的 관계에 있게 된 것도 바로 그와 같은 사정 때문이라 하겠다.[1)]

그런데 역사서로서의 『삼국사기』에 내재한 체제나 성격, 그리고 편찬의 목적 등은 현재 자체에 대한 분석이나 「進三國史表」와 같은 당대에 작성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비교적 선명하게 밝혀진 상태이다. 논자들 사이에 기본적 사항을 둘러싼 견해차가 별로 크지 않다고 단언해도 무방할 듯 싶다. 이런 실상에 견주면 『삼국유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논란되는 부분이 매우 많고 큰 편이다. 역사서로서의 『삼국유사』를 정치사나, 사회사·문화사의 어

1) 이에 대한 전반적 이해에 대해서는 이기백, 『韓國古典硏究-三國遺事와 高麗史 兵志』, 일조각, 2004.

느 입장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평가가 적지 않게 엇갈리고 있다. 한국 고대 불교사나 불교문화사, 鄕歌와 관련한 특정 분야에 대해 『삼국유사』가 갖는 비중이나 중요도는 가히 절대적이라 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반면, 일반 정치사와 관련해서는 『삼국사기』에 對比하면 설화적 성격의 내용이 너무 많아 극히 보조적인 역할에 머물고 있다. 여하튼 계속 논란된다는 자체는 사서로서의 『삼국유사』가 그만큼 중요도가 큰 問題作임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 성격의 『삼국유사』를 승려 일연은 왜 지으려고 애를 썼을까. 禪僧이었던 일연의 삶이 과연 그럴 정도로 여유롭고 한가로웠을까.[2] 그의 생애 전반을 엿볼 수 있는 塔碑를 일별하면[3] 엄청나게 치열한 삶을 살아갔음이 드러나는데, 단순하게 한가로운 여가의 심심풀이 수단으로서 史書를 엮어내려고 한 것 같지는 않다. 몽골의 침략과 지배, 그로부터 야기된 정치사회적 혼란이라는 시대 양상은 한갓 知的 遊戱의 수단으로서 역사서 편찬을 도모한 것이라 보기에는 평가가 너무나 인색하다. 일연이 고심을 거듭하면서 편찬을 통해 무엇인가 드러내고 싶은 어떤 절실한 의도와 생각을 갖고 있었을 터였다. 하지만 『삼국유사』에는 그런 실상을 직접 전해주는 序文이나 跋文이 따로 남아 있지 않은 탓에 논란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연의 편찬 의도나 그가 지닌 역사적 안목 등에 대해서는 『삼국유사』 자체를 대상으로 삼아 다각도로 분석을 시도해볼 수밖에 달리 길이 없다. 여기서는 특히 冊名을 굳이 遺事라고 명명한 의도, 체제로서의 史體, 그리고 구성과 내용 등으로 나누어 나름의 음미를 시도해봄으로써 그를 추적해보고자 한다.

2) 崔南善, 「三國遺事解題」『三國遺事』, 民衆書館, 1946, pp.8-9.
3) 蔡尙植, 『高麗後期佛敎史硏究』, 일조각, 1991 참조,

2. 冊名에 내재된 편찬 의도

어떤 종류의 역사서라도 책명 속에는 자체의 성격과 담겨진 내용의 中核이 매우 압축적 형태로 들어가 있게 마련이다. 가령 『삼국사기』를 예로 들면 삼국 시대를 대상으로 하면서도 '史記'라 한 데에는 司馬遷이 편찬한 『사기』를 본받으려는 강렬한 의도가 깃든 것으로 풀이된다.[4] 말하자면 『삼국사기』의 편찬을 책임진 김부식은 삼국을 다룬 최고 수준의 正史를 만듦으로써 자신은 마치 고려의 사마천으로 自負하겠다는 듯한 심정으로 책명을 굳이 '史記'로 붙였다고 여겨진다. 그런 측면에서 『三國遺事』란 책명 속에도 당연히 일연이 밝히고자 하는 어떤 숨은 의도가[5] 매우 함축적 형태로 담겨져 있다고 보아도 좋을 듯 싶다.

『삼국유사』의 삼국이 당연히 고구려·백제·신라 세 나라를 가리킴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실제 내용은 거기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는 데에 주요한 특징의 하나가 있다. 후술하듯이 『삼국유사』는 책명을 그렇게 붙였지만 『삼국사기』처럼 오로지 삼국만을 주된 대상으로 삼은 斷代史가 아니며, 아직 어설픈 수준이기는 하나 고려 이전의 역사 전체를 체계화하려는 通史를 지향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일견 책명과 실제적 내용이 모순되는 듯이 보임은 결국 『삼국사기』를 겨냥해 내용상 어떤 반감을 표출하려 한 데서 비롯한 일이기도 하였다. 그 점은 일단 책명을 '史記'와는 다르게 굳이 '遺事'라 하여 '事'란 단어를 사용한 데서 유추되는 사실이다.

'유사' 속에는 일반적으로 正史에서 遺漏된 사실,[6] 흘러버린 사실이거나 혹은 정사의 측면에서 볼 때 '무책임'하거나 '우연'한 의도에서라는 뜻이 내재된 것으로[7] 풀이하고 있다. 그래서 『삼국사기』 찬자가 기록에서 빠트렸거

4) 물론 그런 취지에서 책명이 붙여졌지만 『삼국사기』는 『사기』와 같은 通史가 아닌 斷代史인 만큼 흔히 지적되고 있듯이 겉으로 내세운 것과는 달리 실제적 구성은 『漢書』를 전범으로 삼았다.

5) 리상호, 「삼국유사 해제」『삼국유사』, 1959, p.14.

6) 최남선, 앞의 글, p.1.

나 자세히 드러내지 않은 사항을 밝히는 등 補足의 의도에서 붙인 것으로 이해함이 일반적이다.[8] 그렇지만 『삼국유사』의 내용을 通覽하면 그처럼 단순하게 보아 넘기기가 곤란하다는 느낌을 떨치기 어렵다. 일연은 기존 사서에 대해 전혀 만족하지 않았으며, 무엇인가 이들에 대해 강한 불만을 품고 수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의도적으로 남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서 자료의 수집 및 정리와 편찬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기왕에 일각에서 사서로서의 『삼국유사』가 갖는 성격을 曲解한 데에는 '遺'란 단어에 내재한 여러 가지 의미 가운데 유독 하나만을 들추어서 유난스레 강조한 점에 일단의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遺'를 단순히 '遺漏'나 '遺棄'와 같이 '버리다', '빠지다', '빠트리다'와 같은 뜻으로만 풀이해 버렸다. 이는 당연하게도 『삼국사기』를 정사로 미리 내세워 서로 대조해보려 한 데서 빚어진 일면적 이해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유사'란 단어 속에 그와 같은 뜻이 들어있음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나중에 언급하듯이 다른 무엇보다도 紀異篇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정말 그러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이런 이해는 반쯤은 타당하다고 하겠으나 '유사'가 갖는 본질적인 여타의 측면을 모두 놓쳐버렸으므로 전부를 적절하다고 받아들이기는 곤란하다. '遺'라는 단어를 『삼국사기』의 입장에서 '유루'나 '유기'처럼 일방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거기에 내재한 否定的 측면만[9]을 유난히 강조하여 크게 부각시킨 일면적 이해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遺'란 하나의 단어 속에는 '遺産'이나 '遺業'처럼 '남긴다', '끼친다'와 같이 사용자의 입장이나 주관적 의지가 강하게 깃든 의미도 함께 들어있다. 찬자가 '유사'란 단어를 사용하면서 반드시 겸양적인 하나의 뜻만을 표현하였다고 단정하는 것은 지나친 선입견에 불과할 따름이다.[10] 일연이 서로 대치되

7) 리상호, 앞의 글, p.14.
8) 정병삼, 『일연과 삼국유사』, 새누리, 1998, p.62. 이런 입장이 대세임은 다 아는 바와 같다.
9) 혹은 유사란 단어를 사용한 하나의 측면은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일종의 謙讓的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다.
10) 閔泳珪, 「三國遺事」『韓國의 古典百選』, 신동아, 1969 ; 이기백, 앞의 책, p.133.

는 의미를 내재한 '遺'란 단어를 굳이 책명으로 사용한 데에는 무엇인가를 '남기겠다'는 의지가 오히려 더 강하게 깃들었다고 풀이함이 본뜻에 한층 더 가까운 것이 아닐까 싶다. 이미 오래전 편찬되어 국가가 공인한 正史로서 자리 잡은 『삼국사기』에 대해 일연은 어떤 불만을 강하게 품어 하나의 代案으로서 『삼국유사』를 편찬하려 하였다면 무조건 스스로를 낮추어 책명을 마치 '拾遺'처럼 '버린 것을 모았다'는 의미로만 풀이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해석이라 여겨진다. 그와 같은 풀이는 기이편의 序(敍)文에서 孔子의 영향을 받아 신이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 한 기존 사서에 대해 반감을 강하게 표명한 사실과는 매우 어긋나는 것이기도 하다. 일연은 서문에서 聖人이 출현하는 데에는 얼마든지 신이한 일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그런 입장에서 기이편을 남기겠다는 의지를 매우 강력하게 드러내었다. 『삼국유사』의 편찬에는 단순히 『삼국사기』가 사용하지 않고 버리거나 못보고 지나친 것을 주워 모아 보완해 보려는 한갓 소극적인 데에만 머물지 않았으며, 대단히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입장을 강하게 갖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기이편 외 다른 편목의 구성에서도 뚜렷이 확인되는 사항이다.

『삼국유사』 전편을 훑어보면 전체 9편 가운데 기이편과 왕력편을 제외한 興法篇 이하 마지막의 孝善篇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불교 관련 내용임이 확인된다. 『삼국사기』에서는 항목 설정은 물론 내용조차 거의 없던 것들이다.[11] 이와 같은 편목 구성은 일연이 남기겠다는 강한 의욕을 지녔다고 풀이하는 데서 비로소 이해가 가능한 대상이다. '유사'란 단어에는 차라리 전자보다 후자의 의미가 더 강하게 담긴 것으로 보아야 할 근거는 바로 이런 데서 찾아진다. 六堂 崔南善의 주장처럼 단순하게 逸事遺聞을 纂集한다거나, 오늘날 新聞의 雜報나 事件의 漫錄과 같은 것이라[12] 보아서는 찬자의 본심

11) 특이하게도 『삼국사기』48 열전에 실린 「向德」조와 「勿稽子」조 기사는 내용상의 기본 줄거리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각각 孝善篇과 避隱篇에 실려 있다. 이들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일연이 편성해둔 편목에 어울렸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항목이 빈약한 까닭에 이를 메우려는 의도도 작용한 데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12) 崔南善, 앞의 글, p.1.

에 대한 正鵠을 얻은 것이라 보기 힘들 듯 싶다.

『삼국사기』를 국가의 공식적 역사서로 여긴 당시의 주류적 입장에서 보면 『삼국유사』가 일종의 異端的 입장에서 작성된 것임이 분명하다. 그래서 찬자 일연 스스로도 똑같은 사실이더라도 整齊된 좁은 의미의 사실인 '史'가 아니라 매우 넓은 의미로서 과거 일어난 모든 사실, 사건 일체를 가리키는 '事'란 단어를 굳이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또한 기존 正史에 대한 강한 도전적 의식을 드러내려는 속셈이어서 일연의 본심을 이해하는 데에 필히 참고로 삼아야 할 대목이다.

이처럼 책명으로 볼 때 일연은 단순히 소극적 입장에서 기존 사서가 사용하다 내버린 사실들을 우연히 주워 모아서 편집해 묶으려 한 것이 아니었다. 무엇인가 남겨보겠다는 강한 도전 의지를 갖고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삼국유사』를 편찬하려 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 점은 사서로서의 체제, 즉 사체(史體)를 구체적으로 점검하면 더욱 명료하게 드러난다.

3. 體制와 構成으로 본 역사 인식

1) 편찬의 방식과 체제

『삼국유사』는 王曆, 紀異, 興法, 塔像, 義解, 神呪, 感通, 避隱, 孝善 등 전체 9개의 篇目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편목의 하위로 설정된 세부 項目의 수치는 비등하지 않으며 편목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神呪篇처럼 겨우 3개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기이편의 경우 전체 59개의 항목에 이를 정도로 지나치게 많아 결국 前後의 둘로 나누어 編制할 수밖에 없었다. 같은 불교 관계를 다룬 편목 가운데 답상편은 유난히 많아 30개 항목에까지 이른다. 이와 같이 각 항목의 수치상에서 편차가 큰 것은 곧 기초 자료의 수집과 함께 편목을 가르는 작업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던가를 유추하는

데에 참고가 된다.

유관 자료의 수집을 전부 마무리한 뒤 이들을 앞에 놓고서 일단 편목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항목을 나누어서 배치하는 방식의 작업을 진행하였을 가능성은 별로 커보이지가 않는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했을 경우 항목 수치상의 극심한 불균형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기이편의 경우 앞서 언급하였듯이 항목이 지나치게 많아 마침내 전후의 두 편으로 나누어서 편제한 사실에서 그 점은 뚜렷이 드러난다. 그러므로 자료 수집과 관련한 작업의 종료에 앞서 일단 편목 구성이 먼저 이루어진 생태였다고 봄이 온당하겠다.

물론 그렇다고 자료 수집을 시작하던 최초 단계부터 미리 편목을 9개로 나누어 편성해 두었을 리는 만무한 일이다. 장차 자료 수집을 어떻게 진행할지 모르며, 또 앞으로 얼마나 시간이 소요될지 가늠하지 못하는 막연한 마당에 무조건 편목 가르는 작업부터 진행했다고 보는 것은 이해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일단 자료 수집에 착수하여 일정 정도의 수준에 이르자 이를 놓고 진행의 방향을 헤아리면서 전체 편목을 잠정 설정한 뒤 항목들을 다시 분류, 거기에 배치했다고 봄이 적절한 이해이겠다. 그럴 때 아직 9개의 편목 전부를 완료된 상태로 설정하지는 않았으며, 그리고 미흡한 항목에 대해서도 장차 자료 수집 보완의 작업을 해나가려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편목을 새롭게 설정, 수정·보완하기도 하고, 항목을 재조정하는 작업을 시도하였을 터이다(사실상 보완이란 언제나 끝이 보이지 않는 일이었겠지만). 그럼에도 신주처럼 끝내 3개만으로 그치고 말아 더 이상 진전시키지 못한 상태로 끝맺음한 경우까지 생겨난 것이 아닌가 싶다.

이렇게 보면 일연의 생전에 『삼국유사』란 책명은 물론 9개의 편목 설정 등과 항목 배치 에 대한 기본 골격은 대체로 마련되었으나 항목 보완 등의 측면에서 아직 온전히 마무리를 짓지 못한 사실상의 未完 형태였다고 할 수 있겠다. 이는 전체의 序文이나 跋文을 작성하지 못한 데서도 그러려니와[13]

13) 기이편의 서문을 남긴 사실로 미루어 완성되었을 때 전체 서문이거나 아니면 발문을

뒷날 제자인 混丘 無極이 최종의 간행을 위해 나름의 마무리 작업을 추진하면서 약간의 보완을 시도한 것은[14] 그럼 사정을 명백히 입증해주는 사실이다. 여하튼 일연의 생전에 『삼국유사』 자체는 약간 보완 여지를 남기긴 하였으나 대체로 완성에 가까운 상태였다 상정하여도 무방한 일이겠다.

편찬의 방식은 어떻든 현전하는 『삼국유사』의 체제는 약간 특이한 면을 보인다. 전체 9개의 편목으로 이루어진 구성 자체는 명칭이나 분류 방법으로 보아 기존의 사서 가운데 어디에도 선뜻 해당시키기 곤란하다. 그래서 기왕에 『삼국유사』의 체제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史體 전반을 두루 고려해 紀傳體로 분류하려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크게 중국의 高僧傳 체제를 모방한 것이라 이해하려는 입장도 있다. 일단 『삼국사기』의 편목 분류 및 거기에 동원된 명칭 등으로 미루어볼 때 이들 두

남기려 기획하였을 가능성이 예상된다. 다만, 후술하듯이 왕력편이 뒷날 간행을 위한 편집을 하면서 덧붙여진 것이라면 기이편의 서문이 내용상 전체 서문의 가능을 하고 발문만을 쓰기로 하였다가 끝내 마무리 짓지 못한 것일 수도 있겠다.

14) 무극이 보완한 것은 탑상편의 「前後所將舍利」조와 義解篇의 「關東楓岳鉢淵藪石記」조 속의 두 항목이다. 그러나 전자와 후자에 보이는 차이는 뚜렷하다. 전자는 일연이 항목을 이미 설정해 작성한 부분의 뒤에다 이어서 첨부한 반면 후자는 무극 자신이 따로 항목 설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후자는 항목의 명칭이 의해편의 그것과는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의해편의 다른 항목은 모두 승려의 이름을 넣었지만 후자는 그렇지가 않다. 그런데 그 내용은 바로 앞의 「眞表傳簡」조를 이어서 보완한 성격이 짙다. 그렇다면 이 또한 원래 전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따로 항목을 설정하려 한 것이 아니라 「진표전간」조에 뒤이어 넣으려 하다가 어떤 잘못으로 독립된 항목처럼 겉으로 표출된 것이 아닌가 싶다. 그 점은 후자의 말미에 '此錄所載眞表事跡與鉢淵石記互有不同 故刪取瑩岑所記而載之 後賢宜考之 無極'이라 하여 이 글을 써넣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데서 유추된다. 무극은 원고 상태로 존재하였던 듯한 『삼국유사』를 '此錄'이라 표현하였고(윤선태, 「三國遺事의 後人夾註에 대한 再檢討」『한국고대사연구』78, 2015, pp.367-368) 거기에 실린 眞表의 행적과 瑩岑이 작성한 鉢淵藪 소재의 비석 내용이 차이가 났으므로 뒷날의 독자들이 참고하도록 보완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후자는 현재 독립된 항목으로 편성된 모습이나 실제로는 전자와 마찬가지로 「진표전간」조에 덧붙여 있었다고 보는 편이 적절하다. 아마도 무극도 제자의 도리로서 함부로 항목까지 따로 제시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삼국유사』에 의도적으로 반영시키려 한 것 같지는 않다. 다만, 이런 보완의 시도도 무극의 입장에서 '此錄'으로 표현한 원고 상태의 『삼국유사』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인식한 데서 비롯한 행위로 여겨진다.

요소가 뒤섞여 함께 들어가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 까닭으로 반드시 어느 한 사서의 체제를 따랐다고 잘라서 말하기 곤란한 실정이다. 기존의 특정한 하나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주제 선택과 상상력을 동원할 수 있는 개인의 편찬이란 便利點을 한껏 살린 데서 가능한 일이었다. 그래서 『삼국유사』만의 고유한 독창적 체제라는 주장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15] 체제 구성의 실상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하면 『삼국사기』와 같은 기전체적 요소와 함께 중국의 梁·唐·宋高僧傳에 보이는 체제를 기본 골간으로 삼고 거기에다 나름의 창의성을 더함으로써 독특한 모습을 갖춘 것임이 드러난다.

이처럼 기존 역사서에서 이용한 특정 형식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굳이 몇몇 요소를 적절히 배합시키고 독창성을 가미해서 활용하려한 밑바닥에는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지닌 어떤 기본적 생각을 담아내려는 강렬한 의도를 깐 것으로 풀이된다. 달리 말하면 일연은 어떤 확고한 목적의식을 갖고 『삼국유사』를 편찬하려 기도한 것이었다고 하겠다. 그런 점은 『삼국유사』의 체제를 구체적으로 점검하면 더욱 더 확연히 드러나는 사실이다.

2) 王曆과 紀異

전체 9개에 달하는 편목은 널리 지적되듯이 일단 크게 두 개의 그룹으로 정리할 수 있을 듯하다. 앞부분의 왕력과 기이의 두 편을 하나의 묶음으로 묶을 수 있다. 여타 나머지가 저절로 또 다른 하나의 묶음으로 분류된다.

왕력이란 명칭은 대단히 독창적 표현법이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여러 나라의 기년을 서로 알기 쉽게 대조하기 위한 연대 對比表로서 기전체의 年表란 편목에 해당한다. 중국의 기년을 맨 첫머리에 내세워 이를 주요 기준으로 삼았으며, 바로 아래에는 건국의 시점에 따라 신라, 고구려, 백제의 순서로 배

15) 그래서 김두진, 『삼국유사의 사학사적 연구』, 일조각, 2014, p.88에서는 『삼국유사』의 체제를 독특하게 歷史·僧傳類라 부르기를 제안하고 있다.

열하고 있다. 각각의 세부 항목에서는 단순한 연대 대비를 위한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 비교적 상세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 점에서 특징적 면모를 보인다. 내용을 다룬 기이편에 앞서 왕력편을 가장 앞머리에다 내세운 점도 『삼국사기』의 연표와는 다른 특징적 측면이라 할 수 있다.

왕력은 기술된 분량에 따른 詳略의 차이점을 제외하면 기본적 구조나 내용상 『삼국사기』의 연표를 거의 그대로 따랐다고 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매우 비슷하다.[16] 다만, 삼국이 시작된 약간 뒤에다 그들과 대등하게 駕洛國(金官國)의 欄을 다시 따로 마련한 구조는 『삼국사기』와 뚜렷하게 차이를 보이는 또 다른 특징적 요소이다. 두 사서가 가야를 이해하는 근본 입장과 시각을 달리한 데서 말미암은 것으로 여겨진다.

『삼국사기』가 가야사를 신라사 속에 모두 해소시켜버림으로써 전혀 독립적 대상으로 다루지 않았다면,[17] 『삼국유사』는 가야의 독자적 실체를 그대로 인정한 바탕 위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어진 기이편의 前篇(기이1이지만 이하에서는 편의상 전·후란 표현을 사용함)에서 「五伽耶」조란 항목을 편성한 사실이나 後篇(기이2)의 말미에다 「駕洛國記」조란 항목을 따로 실은 데서 그런 점은 저절로 드러난다.[18] 이처럼 가야의 위상에 대해 근본적인 입장 차이를 보이는 등에서 특징적 면모가 드러나지만, 여하튼 일연은 기전체, 특히 『삼국사기』의 연표를 기본적 틀로 삼아 왕력편을 정리하였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이와 함께 『삼국유사』가 『삼국사기』를 참고한 점은 다음의 기이편에서도 찾아진다.

기이편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크게 전편과 후편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편은 序文을 필두로 해서 「古朝鮮」조에서 「長春郎 罷郎」조까지 전체 36개 항목으로 이루어졌고, 후편은 「文虎王法敏」조로부터 「駕洛國記」조에 이르기까지 23개의 항목으로 편성되어 있다. 삼국 가운데 고구려와 관련해

16) 채상식, 『一然, 그의 생애와 사상』, 혜안, 2017, p.258.
17) 다만, 같은 『삼국사기』라도 신라본기의 경우는 그러하지만, 地理志에서는 그렇지 않다.
18) 다만 왕력을 諸篇 가운데 첫머리에 올리고 있는 점이 또 다른 특징이다. 이로 말미암아 왕력을 두고 일연이 직접 작성한 것인가 아닌가의 논란이 제기되어 있다.

서는 「古朝鮮」조로부터 「東扶餘」조에 이르기까지 12개 항목을 배치한 다음 건국기의 설화적 내용만을 중심으로 다룬 「高句麗」조란 오직 하나의 항목만을 전편에 배치해 두었을 따름이다. 이유는 불분명하지만[19] 『삼국유사』가 고구려에 대한 배려에서는 너무도 인색한 편이라 평가할 수 있다.

반면, 백제에 대해서는 고구려에 견주면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전편의 「고구려」조 다음에 간략한 내용의 「卞韓 百濟」조를 배치해 두고,[20] 후편에서는 신라의 마지막인 「金傅大王」조의 뒤에다 다시 「南扶餘 百濟」조, 「武王」조를, 그리고 바로 뒤이어 「後百濟 甄萱」조까지 배치하였다. 백제의 모태로서 변한을 내세웠을 뿐만 아니라 聖王대에 국명을 남부여로 바꾼 내용을 비롯해 여러 갈래의 사서를 활용하면서 건국으로부터 멸망기에 이르기까지의 백제사 전반의 흐름을 개관하고 있다. 더욱이 백제의 부활을 전면에 내세운 후백제까지도 다룬 점이 주목된다. 고구려의 재건을 표방한 後高句麗나 弓裔에 대해서는 전혀 눈을 돌리지 않은 사실과는 무척 대조적인 모습이다.

신라에 대해서는 전편에는 모태인 「辰韓」조로부터 통일 직전의 「長春郎 罷郎」조에 이르기까지 21개 항목을, 후편에서는 「文虎王 法敏」조로부터 「金傅大王」조에 이르기까지 19개 항목을 배치해 두고 있다. 신라의 역사에 대해서는 40개 항목에 걸쳐 건국으로부터 멸망기에 이르기까지 국왕대별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전반적 내용은 물론 전체 분량의 측면에서 볼 때에도 『삼국유사』는 『삼국사기』보다도 한결 더 신라에 무게를 둔 셈이라 하겠다. 언뜻 항목과 내용을 살피면 기이편의 신라 관련 항목은 편목의 명칭만 달리하였을 뿐 編年의 방식으로 정리된 『삼국사기』의 신라본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보면 기이편은 전후 각기 비등한 배치를 시도해 모두 59개

19) 고구려에 대해서는 기존의 『삼국사기』나 혹은 고려 초의 『舊三國史』로 만족한다는 의미에서인지 아니면 더 이상 새로운 자료를 수집하지 못한 탓인지 알 수가 없다. 어쩌면 양쪽 모두에 해당하는 것 인지도 모르겠다.

20) 그런 논리대로라면 고구려는 마한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설정해서 「고구려」조의 바로 앞이거나 아니면 「고구려 마한」처럼 정리함이 적절할 듯한데 「마한」조는 「魏滿朝鮮」조의 바로 뒤에 배치해 고구려와 전연 별개로 다루었다.

항목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가운데 신라가 40개, 고구려가 1개, 백제가 3개(후백제를 포함하면 4개), 가야가 2개 항목을 차지한다. 기이편은 내용상 약간의 예외가 있기는 하나 거의 대부분 국왕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으며, 일단 『삼국사기』의 세 本紀를 겨냥해서 설정한 편목으로서 신라가 중심을 이룬다고 하겠다.

그런 사정의 일단은 신라사를 전후하는 두 시기로 나누되, 분류의 기준 시점을 통일기로 잡고 있는 데서도 유추된다. 신라사를 통일기 기준으로 해서 전후 두 시기로 나누는 방식은 이미 『삼국사기』에서 확립되었다.

먼저 新羅本紀의 12권 가운데 꼭 半에 해당하는 6권과 7권을 文武王紀로 배당해둔 점이 주목된다. 이는 『삼국사기』 찬자가 문무왕을 매우 중요시해서 대단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음을 여실히 증명해준다. 신라본기가 전체 12권으로 이루어졌으므로 56왕을 평균하면 권당 4.7명 정도가 배당된다. 그럼에도 유독 문무왕에게만은 홀로 무려 2권이나 책정함으로써 압도적 비중을 두고 있다. 이는 『삼국사기』가 삼국에 대해 어떤 역사 인식을 갖고서 편찬하였던가를 알게 하는 대목이다. 신라에 의한 삼국통일을 두드러지게 부각시키려는 생각에서 비롯한 것이었다.

한편, 列傳의 경우에도 그와 매우 비슷한 양상이 확인된다. 열전은 『삼국사기』의 전체 50권 가운데 1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열전에서 독립적으로 立傳된 인물은 54명이므로 평균하면 권당 5.4명이 된다. 이름만 올린 附隨 인물까지 모두 포함하면 모두 87명에 이르므로 권당 대략 8.7명이 배당되어야 적절하다. 그렇지만 김유신 혼자에게만 무려 3권이나 책정하는 특이한 면모를 보인다. 전체의 30%를 차지하므로 김유신에게 엄청나게 큰 비중을 두었음을 알 수가 있다.

신라가 삼국을 통합하는 데에 결정적 공헌을 한 두 인물이 문무왕과 김유신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일이다. 이는 곧 『삼국사기』 찬자가 삼국통일에 대해 신라사에서는 물론이고 한국고대사에서의 커다란 변동기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뜻하는 일이기도 하다. 고려 중기에 이르러 그와 같은 인식이 국가

의 공식적 입장으로서 정착되었다. 아마도 이는 고려국가가 고구려를 승계하였다는 인식을 가졌던 초기부터 표방된 것이라기보다는 1135년 발발한 妙淸의 난을 진압하는 데 성공한 뒤에 이르러서의 일로 보인다. 오래도록 일각에서만 주창되던 신라에 의한 삼국통일 중시의 인식이 묘청의 난 이후 겉으로 두드러지게 되고 그런 사정이 『삼국사기』를 편찬하면서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삼국유사』 찬자 일연도 그런 입장의 연장선상에서 적극 받아들였던 셈이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고구려 관련 사항이 지나칠 정도로 무시된 듯한 인상을 풍기는 측면도 그런 분위기와 일맥상통한다.

이상과 같이 보면 일단 기이편은 『삼국사기』에 내재된 역사적 인식은 물론 본기의 체제를 받아들인 입장에서 설정한 편목임이 확실하다. 다만, 「金閼智 脫解王代」조, 「奈勿王 金堤上」조, 「神武大王 閻長 弓巴」조와 같은 형식으로 어떤 인물을 王名과 함께 항목 명칭으로 드러낸다거나 아니면 「金庾信」조나 「處容郎 望海寺」조처럼 특정 인물을 내세워 다루고 있는 경우도 보여 주목된다. 이는 곧 『삼국사기』의 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기이편의 성격을 생각하는 데에 깊이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그런 뜻에서 기이편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면 결국 기년체의 본기와 열전을 한데 묶어서 정리한 편목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겠다.[21] 그러면서도 본기나 열전과 같이 기전체의 편목을 꼭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고 굳이 '이상한 일을 기록한다'는 뜻의 紀異란 용어를 창안해 사용한 것은 본기와 열전의 두 편을 아울러서 표현하려는 데서 나온 부득이한 측면이 없지는 않았겠으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같은 내용을 다루면서도 『삼국사기』와는 근본적 입장과 인식을 달리함을 강하게 표출하려는 데서 말미암은 것으로 여겨진다. 그 점은 후술하듯이 기이편의 서문에서 神異한 요소를 각별히 강조하고 있는 데서 그대로 묻어난다. '紀異'의 '異'는 다름 아닌 神異였다.

---

21) 김두진, 앞의 책, p.101이나 남동신, 「삼국유사의 사서로서의 성격」『불교학연구』16, 2007, p.55에서는 기이편을 본기에만 한정하는 것으로 이해하였으나 열전까지 포함시킴이 적절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점이 기전체를 모방하면서도 나름의 독창적 면모를 지녀 『삼국유사』를 매우 돋보이게 하는 요소의 하나라 하겠다.

기이편은 사실상 『삼국유사』가 神異史觀의 입장에서 본기와 열전을 함께 포괄한 國家史, 政治史를 다룬 편목으로서 흐름을 다루는 일종의 時代史였던 셈이다. 『삼국사기』의 체제를 기본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굳이 그와는 다른 이름을 창안해 사용하면서 특히 서문에서 명시적으로 드러낸 것처럼 신이함을 怪異하게 여기지 않고 각별히 강조하려 한 데에 있었다. 달리 말하면 『삼국사기』에서는 유교적 합리주의 입장에서[22] 신이함을 배제하려고 하였다면 일연은 이에 강한 불만을 품고서 기이편을 작성한 것이라 하겠다. 그래서 『삼국사기』의 편찬 과정에서 아예 무시하고 거들떠보지 않았던 자료들을 가능한 한의 범위에서 수습해 재정리해 보려고 하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유사'의 첫 번째 의미로서 유기한 자료를 拾遺하였다는 뜻은 여기에다 표적을 둔 것이었다. 이는 삼국 중심의 역사 전반을 정리하면서 신이함을 각별히 강조한 일연이 경험한 현실 상황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듯하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내용을 다루면서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다.

3) 흥법 이하 7개 편목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일연은 『삼국사기』가 역사의 전개 과정에서 면면히 작용하였으리라 여긴 神異的 요소를 극력 배제한 데 대한 불만의 일단을 기이편을 통해서 표출한 셈이었다. 그래서 『삼국사기』 찬자가 빠트렸거나 도외시한 자료를 중심으로 기이편에다 종합, 정리해 넣고자 하였다. 『삼국사기』에 견주어 기이편을 쭉 훑어나가면 그 점은 여실히 드러난다. 상당 부분 『삼국사기』에는 아예 실리지 않았거나 실렸더라도 내용과 입장이 전혀 다른 새로운 자료를 많이 활용하였다. 그래서 『삼국사기』와는 내용상 거의 중복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삼국유사』의 또 다른 특징적 면모를 지적할 수 있다. 기이편에서 신이한 관점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었지만 왕력편에서도 또한 『삼국사기』의 연표를 끌어들이면서 이를 충분히 보완해보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시

22) 이기백, 앞의 책, p.134 참조.

도는 유학적 인식을 강하게 견지한 『삼국사기』에 내재된 문제점과 한계를 기본적으로 인식하면서 매 사안마다 代案을 제시하려는 자세를 취한 것이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유사'란 단어에 담긴 소극적 의미는 바로 이런 점을 대상으로 삼은 데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삼국사기』에 대한 불만은 단지 그 점에만 머문 것이 아니었다. 승려의 눈으로 보았을 때 『삼국사기』의 내용에는 크게 불만을 가질 만한 더욱 큰 측면이 엿보였기 때문이다. 사실 꼭 승려의 입장이 아니더라도 『삼국사기』에는 삼국시대를 대상으로 삼은 사서로서 제대로 완성된 모습을 갖추려면 당연히 들어가야 할 불교와 관련한 주요 내용이 대부분 빠졌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다.

『삼국사기』는 전편에 걸쳐서 佛敎에 관한 내용은 별로 다루고 있지를 않다. 삼국의 정치사 전반을 취급한 세 본기에서는 불교를 특별한 경우에만 한정해서 매우 단편적 수준으로만 취급하였을 따름이다. 사실상 불교 관계 기사를 거의 싣지 않은 셈이나 다름없다. 高僧 중심으로 해서 불교 관련 내용을 다룰 여지가 가장 많았던 열전에도 단 한 명의 승려를 立傳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이런 점에 대한 불만이 일연으로 하여금 『삼국유사』를 편찬하게 한 또 다른 요인으로 크게 작용하였던 것 같다. 『삼국사기』를 많이 참고한 『삼국유사』의 절반이 불교와 관련 내용으로 편성되었음은 그를 뚜렷이 입증해 주는 사실이다.

『삼국사기』 50권 가운데 10권으로 편성된 열전에서 强首, 崔致遠, 薛聰과 같이 유학자, 혹은 그런 성향을 강하게 보인 인물들에 대해서는 권46(열전 6)에다 하나로 묶어서 다루었다. 물론 『삼국사기』의 편찬 당시 수집한 자료가 너무 빈약한 탓이었는지는 몰라도 이들 유학자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할애한 상태라고는 말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크게 역할을 해서 다양한 事迹이나 족적을 남긴 불교나 승려들은 아예 무시해버린 점에 문제가 있다. 『삼국사기』 편찬에 착수할 때 조금만의 관심이라도 기울였다면 쉽게 구할 수 있는 중국의 梁·唐·宋의 세 나라 高僧傳에도 전혀 관심을 돌리지

않았다. 거기에는 뛰어나게 두드러진 활동을 함으로써 立傳될 정도의 삼국 고승들이 취급되고 있다. 승려인 일연의 입장에서 볼 때 삼국 시기 당시 고승들의 활약에 턱없이 미치지 못한 儒者를 다루면서도 그에 관심을 전혀 돌리지 않았던 데 대해서 크게 불만을 품었을 것임은 당연히 상정해볼 수 있는 일이다.

삼국시대의 불교사와 관련해서는 1215년 왕명을 받은 覺訓에 의해 편찬된 『海東高僧傳』이 이미 존재한 상태였다. 아마도 그 편찬은 고려국가의 공식 사서인 『삼국사기』에서 불교를 다루지 않은 점에 대해 자체 보완하려는 생각에서였을 것 같다. 그렇다면 이는 『삼국사기』가 안고 있는 한계를 정식으로 인정한 셈이나 다름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일연도 『삼국유사』 곳곳에서 '海東僧傳', '高僧傳', '僧傳'과 같은 형태로 여러 차례에 걸쳐 『해동고승전』을 인용하고 있다.[23] 이로 보아 일연이 『해동고승전』을 세세하게 점검하였음은 틀림없다. 그럼에도 굳이 불교사 내용을 또 다른 축으로 삼아 『삼국유사』를 편찬하려는 한 것은 그 내용에 대해 별로 만족스럽게 여기지 않았음을 뜻한다. 일연이 불교와 관련하여서도 나름의 독창적 편목을 설정해 『해동고승전』의 체계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다루려는 대상의 선정이나 내용 등에서도 뚜렷한 입장의 차이를 보인 데서 짐작할 수가 있다. 일연은 『삼국유사』의 편찬을 통해 나름의 시각과 입장에서 삼국의 불교사 전반을 새롭게 재정리해 보려는 생각을 갖기에 이른 것으로 추측된다.

이상과 같이 보면 일연은 불교와 관련하여서는 『삼국사기』와 『해동고승전』 양자 모두에 대해 일정한 불만을 품고서 『삼국유사』의 편찬에 착수한 것 같다. 『삼국사기』가 아예 취급을 하지 않았다는 데서, 『해동고승전』에는 구성과 내용이 그리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여긴 데서 일종의 대안을 마련하려 한 것이었다. 그것은 『삼국유사』에 인용된 수십 종에 달하는 각종의 引用書

23) 이처럼 인용한 곳이 전체 16군데나 인용하면서 상당 부분 비판적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金相鉉, 「海東高僧傳의 史學史的 性格」『藍史鄭在覺博士古稀記念東洋學論叢』, 1984 ; 崔柄憲, 「三國遺事에 나타난 韓國古代佛敎史 認識」『三國遺事의 綜合的 檢討』,1987, p.187), 15군데로 보는 견해도(남동신, 앞의 논문, p.55) 있다.

目 가운데 『삼국사기』[24]와 『해동고승전』[25]의 두 책이 가장 많이 비판적으로 인용된 사실은 그를 명백히 방증해 준다. 이미 언급한 왕력편과 기이편은 주로 『삼국사기』를 주요 표적으로 삼은 것이었지만, 나머지 흥법편 이하 마지막 효선편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불교를 다룬 7개 편목은 두 책을 함께 겨냥한 것이었다.

흥법 이하 7개 편목은 명칭상 대체로 중국 고승전의 체제를 따랐던 측면이 강하게 엿보인다. 물론 그렇다고 오직 어느 특정 고승전 하나만을 선택해서 체제 그대로를 전부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 일연은 수집된 자료 현황을 감안하여 여러 고승전의 체제를 적절히 조합하고 다시 나름대로 편목으로 분류해 창의적 명칭을 부여하였다. 그런데 이들 편목 가운데 일단 탑상이나 효선처럼 기존의 여느 고승전에서도 보이지 않는 독특한 명칭을 창안해 사용한 점은 각별히 주목해볼 대상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일연이 '유사'에 담긴 적극적인 의미로서 남기겠다는 강고한 의지는 바로 흥법편 이하의 불교 관련 편목에 맞추고 있었다. '유사'를 단순히 버렸던 것을 주워 모았다는 소극적, 부정적 의미로서만 풀이해서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에게는 불교가 한갓 심심풀이의 대상일 수는 없었다. 나름의 시각과 입장에서 삼국의 불교사를 재정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하게 인식한 데서 비롯한 것이었다.

4) 효선, 피은, 그리고 탑상

삼국의 불교 전래와 수용을 취급한 흥법편, 신앙과 관련된 대상을 취급한 탑상편, 고승들의 활약상을 다룬 전기인 의해편, 密敎의 靈驗을 다룬 신주편,

---

24) 『삼국사기』는 대부분 『國史』, 『三國史』, 『三國史記』와 같은 형태로 되어 있다. 이들이 대부분 김부식의 『삼국사기』를 가리킴은 李康來, 『三國史記典據論』, 민족사, 1996 참조.

25) 金相鉉, 李基白, 崔柄憲, 남동신 등 대부분이 그런 입장이다. 반면 『해동고승전』을 補足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입장도(정병삼, 앞의 책, p.63) 있다

다양한 계층의 영험적 신앙 경험을 다룬 감통편 등은 전부 불교사와 직접 연관된 내용들이다. 이들을 통해서 일연은 삼국 시대 불교사를 나름의 입장과 시각에서 체계화해보려는 시도를 한 셈이었다. 효선편과 피은편도 물론 불교와 연관되지만 밑바닥에는 자신의 개인적 삶과 연결해 설정한 독특한 편목으로서 약간 다른 각도에서 음미해볼 필요가 있는 대상이다.

맨 마지막에 실린 효선편은 모두 5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는데 부모에 대한 孝行을 다루고 있는 편목이다. 대체로 불교와 직접 연관되는 효행이 5개 중 3개 항목으로서 내용상 주류를 이룬다고 할 수 있지만, 「向得舍知割股供親 景德王」조나 「貧女養母」조처럼 불교와 거의 무관한 항목도 함께 들어가 있다. 특히 向德은 『삼국사기』 열전에 이미 실려 있는 것이지만 내용이 대동소이함에도 이를 다시 포함시키게 된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효선편은 효행 관련 자료를 수집해 가던 중 『삼국사기』에 실려 있음에도 그 자체 특이한 내용이고, 또 항목을 늘리기 위한 필요성에서 싣게 된 것이 아닐까 싶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효선편의 첫머리에 내세운 「眞定師孝善雙美」조이다. 어린 시절 홀어미와 가난하게 살던 전정사가 어머니 봉양과 출가의 두 문제를 놓고 고심하던 중 결국 어머니의 강권으로 마지못해 義湘法師의 문도로 출가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출가한지 3년만에 어머니의 訃音을 듣자마자 7일 동안 가부좌를 틀고 앉아 禪定에 들어가 佛子로서의 효심을 드러내었다. 이로 보면 효선의 善은 출가한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26] 보인다. 아마도 효행과 출가라는 선행을 등치시켜 둘 다 찬미해야 할 일이라는 뜻으로서 '雙美'란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여기에는 곧 자신의 처지와 심정을 그대로 담아내려고 의도한 느낌이 강하게 든다.

일연의 일생 전반에 대해서는 현전하는 탑비를 매개로 하면 어느 정도 재구성이 가능하다.[27] 그는 9세에 집을 떠나 14세에 진전사에서 具足戒를 받

26) 이기백, 앞의 책. p.90.
27) 탑비를 통한 일연의 행적 전반 정리는 蔡尙植, 앞의 책, pp.111-125 참조,

아 승려가 됨으로써 완전히 속세를 벗어났다. 오랜 승려생활을 거쳐 78세 되던 1283년 무렵 왕명을 받아 잠시 개경에 머물던 일연은 노년기의 타향살이가 매우 고달팠기 때문이기도 하려니와 老母 봉양을 앞세워 麟角寺를 下山所로 삼아 낙향해 마지막을 보내었다. 노모는 이듬해 96세를 일기로 사망하였다. 이미 자신도 매우 노쇠한 상태였음에도 낙향의 명분으로서 노모 봉양을 앞세운 것은 출가하면서부터 효행의 문제가 언제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아마 일연 자신도 부모에 대한 효행을 다하지 못하고 부득이 출가를 감행하면서 겪은 인간적 고뇌와 심경을 진정사의 사례에 곧바로 투영시켜 솔직하게 드러내려 한 것 같다. 그래서 진정사의 행위 일체가 출가를 강력하게 고집했던 어머니에 대한 효행이면서 동시에 선행이라고 추겨 세운 것으로 보인다. 일연이 『삼국유사』의 구성 체계를 가름하기 위해 참고한 여타 고승전류에는 전혀 설정되지 않았음에도 굳이 효선편을 각별히 하나의 편목으로 따로 마련한 자체는 자신의 처지를 『삼국유사』를 통해 은근히 드러내려 한 의도에서 말미암은 것으로[28] 여겨진다. 그 점과 관련해서는 避隱편도 잠시 주목해볼 대상이다.

避隱은 글자 그대로 '피해서 숨는다', '몸을 숨긴다'는 뜻이다. 歃良州의 靈鷲山에 주석하면서 특이한 행적을 보여 널리 알려진 승려 朗智를 다룬 「朗智乘雲 普賢樹」조를 비롯한 10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내용 전부를 一瞥하면 처음부터 속세를 피해 산중 깊숙이 들어가 생활한 승려의 이야기로부터, 출가한 뒤 혼란스런 현실 정치와 사회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 한층 더 깊은 곳으로 숨어 들어가려한 승려의 이야기, 현실 정치에서 좌절을 겪은 뒤 속세를 등지거나 출가한 이야기 등등의 다양한 피은의 사례들로 이루어져 있다. 홀어미를 뒤로 한 채 출가해 僧科에 급제하고 뒷날 국가의 부름을 받아 國尊에까지 오르는 등 일연 자신의 삶과 온갖 想念이 피은편 속에 오롯이 녹아들어 있다는 느낌이다. 특히 「緣會逃名 文殊岾」조에는 靈鷲山에 숨어 살던 승려 緣會의 명성을 들은 元聖王이 國師로 삼으려고 하자 그는 피해서

28) 崔南善, 앞의 글, p.7.

더 깊숙한 곳을 찾아가다가 도중에 文殊菩薩을 만나 되돌아와 어쩔 수 없이 국사가 되었다는 대목은 마치 일연 자신의 생각과 회한을 연회의 傳記를 통해 드러내려 한 것처럼 여겨진다. 물론 중국의 고승전에도 亡身이나 遺身 등의 이름으로 피은과 비슷한 편목이 설정되어 있지만 내용상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 일연이 굳이 피은이란 이름을 사용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겠다. 젊은 승려 시절 몽골의 兵亂이란 亂世를 만나 包山(毖瑟山)의 깊은 산중으로 피신한 경험도 있으려니와 온갖 풍상을 겪고 마침내 중앙정부로부터 國尊, 즉 國師란 최고의 승직을 받기도 하는 등 일연 자신의 삶은 연회의 그것과 너무도 닮은꼴이다. 마침내 노모 봉양의 명분으로 낙향하면서 世俗 일반과 상당히 멀리 떨어진 奧地에 자리한 인각사에다가 마지막 둥지를 틀고자 했던 심정의 일단도 피은편을 설정하는 데에 또 다른 배경으로 작용하였으리라 여겨진다.[29]

이상과 같이 효선편과 피은편의 두 편목은 어느덧 말년에 이른 일연이 지나온 과거지사를 되돌아보면서 자신이 겪은 삶의 궤적에 대한 소회의 일단을 과거사 자료에 빗대어 드러내고자 한 것처럼 여겨진다. 그래서 두 편목을 가장 끝에다 나란히 배치하였으며, 명칭 설정도 가장 뒤늦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거의 대부분 항목은 불교적 성향을 밑바탕에 깔고 있지만 특별히 개인적 삶과 연결된 편목으로서의 특성이 강하게 묻어난다. 그런 의미에서 앞서 본 『삼국사기』나 『해동고승전』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려 한 것과는 성격을 약간 달리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측면은 탑상편에서도 찾아진다.

탑상편은 글자 그대로 佛塔과 佛像을 중심으로 해서 舍利나 佛寺 등 불교 신앙의 핵심이라 할 전반을 취급한 30개 항목으로[30] 구성되어 있다. 삼국에 불교가 전래, 수용, 정착되어간 이야기를 모은 흥법편과 고승들의 전기인 의

29) 피은편에도 효선편의 향덕과 마찬가지로 불교와 관련이 전혀 없고 또 『삼국사기』 열전에도 입전된 「勿稽子」조가 마련되어 있다. 이 또한 피은편의 항목을 늘리려는 데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30) 첫머리에 실려 있는 「東京興輪寺金堂十聖」을 내용상으로 흥법편에 속한다고 간주해 그곳에다 배치하였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해편 사이에 배치해서 불교 관련의 편목 가운데 가장 많은 30개 항목이나 설정한 사실은 일연이 탑상편에다 얼마만큼 무게 중심을 두고 있었던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일연은 탑상편을 대단히 중시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탑상편과 같은 편목의 명칭은 물론 비슷한 내용이 기존의 고승전류에서는 전혀 찾아지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탐상편은 삼국의 불교사를 정리해가면서 일연이 창의성을 단연 발휘한 편목으로서 『삼국유사』를 각별히 돋보이도록 한 요소 가운데 하나로 손꼽을 수 있다. 탑상편 여기저기에 일연 자신의 행적과 숨결이 강하게 배어든 것도 『삼국유사』의 편찬 의도를 고려하는 데에 크게 참고로 삼을 사항이다.

탑상편을 일별하면 일연이 직접 답사를 통해서 실견하거나 당해 현장 및 그 부근에서 습득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작성된 것임이 단번에 느껴진다. 물론 그런 현장적 요소들이 흥법편이나 의해편에도 이따금씩 보이지만 이들에 견주어 탑상편은 가히 압도적이라 평가할 만하다. 탑비에 나타난 일연의 行步를 더듬어 가면 상당 부분은 직접 가보았음직한 곳이었음이 확연히 드러난다. 그래서 현장감이 듬뿍 묻어나며 지금도 직접 찾아 확인할 수 있는 실물 대상이 적지 않다. 이를테면 「金官城婆娑石塔」조, 「南白月二聖 努肹夫得怛怛朴朴」조, 「魚山不影」조 등은 金海 중심의 가야권을 직접 찾아가보고 작성한 것으로서 묘사한 모습 그대로가 남아 전한다. 동해안의 五臺山 방면의 항목이 유난스레 많이 설정된 것도 이들 지역에 거주하였거나 답사한 사실과 밀접히 연관됨은 두말할 나위가 없겠다. 아마도 탑비에 실린 일연의 행적 가운데 거꾸로 빠트린 미비점을 보완할 만한 여지도 이런 항목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데서 가능하리라 여겨진다.

일연이 직접 찾아보고 남김으로써 현장감을 돋보이게 하는 내용은 「南月山」조에도 보인다. 경주의 동남방에 자리한 甘山寺로 찾아가서 719년과 720년 연이어 만들어진 彌勒과 彌陀의 두 불상을 실견하고 거기에 새겨진 명문의 일부를 대충 판독해서 소개하고 있다. 이 불상 명문은 현재에도 남아있으므로 일연이 어떤 내용을 조사하고 어떻게 이해한 것인지의 일단을 보여주

는 실례이다. 이보다도 한결 더 일연이 현장을 실견하고 받은 느낌을 강한 논조로 피력하고 있는 것은 황룡사 관련 항목에서 확인된다. 그런 측면에서 황룡사 관련 내용은 『삼국유사』의 편찬과 함께 일연의 역사 인식을 추리해 내는 데에 가장 중시해야 할 대목으로 손꼽힌다.

일연은 몇 차례에 걸쳐 신라의 왕도 東京(경주)을 방문한 적이 있거니와 그 중 매우 두드러지게 관심을 보인 대상은 皇龍寺였다. 탑상편에 내걸린 30개 항목 가운데 황룡사 관련 내용이 4개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은 그를 증명한다. 「迦葉佛宴坐席」조에는 황룡사 창건과 관련한 내용 전반을 소개하고 바로 아래에서는 거기에 소장된 신라 중고기의 3寶 가운데 丈六像과 9層木塔의 두 개와 신라의 가장 큰 梵鐘인 皇龍寺銅鐘의 조성 유래와 현황 등을 각각 별개의 항목을 나누어서 다루고 있다. 특히 「迦葉佛宴坐席」조에는 몽골 병란 이전 황룡사를 찾았을 때 현황이 그대로 유지되던 시절의 모습, 그리고 병란으로 殿塔이 불타고 묻혀서 폐허가 되어버린 참상과 함께 '自釋尊下至于今至元十八年辛巳歲'라 하여 현장을 직접 방문한 시점이 元의 世祖 至元 18년(1281)인 듯한 내용이 보인다. 한편 「皇龍寺丈六」조에는 兵火로 말미암아 큰 불상(장육상)과 두 보살상은 모두 녹아 없어지고 오로지 작은 釋迦像만이[31] 덩그러니 남은 참상을 기술해놓고 있다. 큰 불상과 두 보살상이라 명기하였음은 불타기 이전의 현장을 직접 실견하였음을 입증해준다. 「皇龍寺九層塔」조에도 몽골 병란으로 '塔寺丈六殿宇皆災'라 하여 황룡사 전체가 모두 불타버리고 말았음을 기록하고 있다. 다만, 여기서는 그 시점을 구체적으로 高宗 16년(1238) 戊戌의 겨울의 일이라고 구체적으로 명기해둔 점이 이색적이다.

이상과 같이 보면 일연은 여러 차례에 걸쳐 경주를 찾아 황룡사를 탐방한 적이 있고, 몽골 병란 이전과 이후의 현황을 대비하면서 참상을 매우 심각한 수준에서 느꼈던 것 같다. 몽골 병란 사실 자체를 무려 세 군데에 걸쳐서 언

31) 구체적으로는 몇 점이었는지를 밝히지 않았지만 불에 타지 않았다고 한 것으로 미루어 石像이었던 것 같다.

급하고 있음은 그를 뚜렷이 입증해 주는 사실이다. 그밖에 「前後所將舍利」조나 「洛山 二大聖 觀音 正趣 調信」조에도 병란이나 江都 이전과 관련한 기록이 실려 있다. 여하튼 이로 보아 몽골의 침략은 일연의 역사 인식에 적지 않게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추정이[32] 가능하다. 탑상편의 설정과 작성에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는지 어떤지는 단정하기 어려우나 『삼국유사』를 편찬하면서 그를 넣어 기술한 것은 끼쳤던 영향이 대단한 수준이었음을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이상에서 일연이 『삼국유사』를 편찬하게 된 배경이나 계기 등에 대해서 체제를 주요 근거로 삼아 살펴보았다. 전체 체제를 구성한 9개의 편목에 대해 크게는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이해함이 적절한 것으로 진단하였다. 왕력편과 기이편을 하나의 묶음으로 하는데, 이는 기전체로서의 『삼국사기』를 겨냥해 대안을 설정한 것으로서 그 가운데 왕력편은 연표에, 기이편은 본기와 열전에 대응한다고 간주하였다. 삼국의 정치사적 흐름을 다룬 부분이다.

한편 불교를 다루는 흥법 이하의 7개 편목은 다시 흥법, 탑상, 의해, 신주, 감통의 5편목과 피은, 효선의 2편목 두 그룹으로 묶을 수가 있다. 전자는 『삼국사기』와 『해동고승전』을 함께 겨냥한 것으로서 삼국의 불교사를 나름대로 새롭게 정리하려는 시도였다. 후자는 일연 자신이 평생 경험한 개인적 삶의 궤적과 연관하여 마지막에 배치한 편목으로서 다른 데에서는 보기 어려운 『삼국유사』 나름의 독창적 체제를 갖춘 배경으로 작용한 셈이다. 이와 관련하여 고려국가가 당시 당면한 정치적 사회적 현상이 영향을 끼친 부분으로는 탑상편을 들 수 있었다. 탑상편은 일연이 참고한 다른 고승전류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 내용으로서 일연의 현실적 역사 인식이 강하게 스며든 편목으로 해석되었다. 이 점은 일연의 역사 인식을 살피면 저절로 드러난다. 다음에는 章을 달리하여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점검해 보기로 하자.

32) 金泰永, 「三國遺事에 보이는 一然의 歷史認識에 對하여」『慶熙史學』5, 1974, pp.85-86.

4. 內容으로 본 역사 인식

이상에서 『삼국유사』의 체제와 구성을 통해 일연의 역사 인식을 추적해 보았거니와 자신이 지닌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기이편의 서문에서이다. 이 서문을 통해 어렴풋하게나마 일연이 『삼국유사』를 편찬한 의도의 일단을 유추해볼 수 있다.

현재 『삼국유사』 전체에 대한 입장을 밝힌 서문이나 발문이 없는 상태이어서 흔히 기이편의 서문이 바로 그런 역할까지 맡은 것이라 추정되고 있다. 여기에는 '不語怪力亂神'이라고 말한 孔子의 신봉자들이 신이한 사실을 다루기 꺼려하였다고 판단한 일연은 帝王이나 聖人의 탄생에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반발하면서 삼국의 始祖 출현도 그런 사례의 하나로서 손꼽고 있다. 바로 그에 뒤이은 서문의 말미에는 다음과 같이 주목해볼 만한 최종 마무리 기록이 실려 있다.

'此紀異之所以漸諸篇也 意在斯焉'

이 짧은 기사는 일연이 『삼국유사』 전반에 걸친 입장을 밝힌 것이지만, 문장과 용어가 워낙 까다로워 명확한 해석과 실상을 놓고서 아직 합치된 견해가 없이 논란되고 있다. 정확한 이해를 위한 주된 관건은 '漸'과 '篇'의 해석 여하에 달려 있다. 이 두 단어는 내용 자체뿐만 아니라 서문이 오직 기이편에만 국한된 것인지, 아니면 全篇에 걸쳐 연관되는지를 결정짓는 열쇠의 기능도 한다.

'漸'에는 '순서'나 '차례'는 물론 '나아가다' 등의 뜻도 함께 들어 있다. 이 두 개의 뜻을 아울러서 '漸'을 '차례로 나아가다'란 뜻으로 풀이해 위에서 제시한 기사를 '이것이 기이를 諸篇의 첫머리에 두게 된 까닭이다'라는 정도라고 이해함이 일반적 경향이었다. 해방 이후 처음으로 이런 해석이 제시된 이래[33] 後續하는 거의 모든 번역서나 주석서들이 아무런 비판적 검토 없이 그

대로 받아들여 왔음이 실상이다. 이처럼 해석하면 '諸篇'에는 당연히 앞서 나온 왕력편을 제외한 기이편 이하 8개 편목 모두가 포함된다. 그렇다고 해서 神異가 전편에 걸쳐 관통한다고 풀이하지는 않았으며, 위의 기사는 어디까지나 기이편을 첫머리에 두는 요인을 신이 때문이라고 이해하였다.

이에 대해 위의 사료를 '여기서 기이의 여러 편을 종합·정리하려는 의도이다'로 해석하는 경우도[34] 있다. 이는 直譯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 상당한 意譯을 한 셈이다. 위의 기사가 정확하게 직역해내기 매우 힘든 문장 구조임을 뜻한다. 이렇게 이해할 때의 '편'은 사실상 위와 같이 전체 편목을 지칭하는 개념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제편'은 모든 편목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기이편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의 모든 전 항목만을 일컫는 것으로[35] 보아 마땅하다. 그렇지만 지나친 수준으로 의역을 감행한 데에 근본 문제가 있다. '漸'의 사전적 의미에는 그와 같은 '종합·정리한다'는 뜻이 사실상 없다. 따라서 '諸篇'의 '편'을 편목이 아닌 항목으로 풀이하는 것도 성립하기 곤란하다.

사실 전자의 문제는 '기이'를 곧바로 기이편과 등치시키면서 '漸'을 '첫머리에 둔다'는 뜻으로 풀이한 데에 있다. 이때의 '기이'가 '기이편'을 지칭한다기보다는 바로 앞에서 설명한 내용 전반을 이어받아 '신이한 일을 기록한'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함이 온당할 듯 싶다. 그리고 '漸'도 거기에 내재된 두 뜻을 하나로 엮어서 그처럼 풀이하였으나 단어 자체에는 순서나 차례를 가리킬 뿐 그런 구체적 뜻은 들어 있지 않다. 물론 단어에 내재된 의미를 조금 넓혀보면 그와 같은 해석도 전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보다는 먼저 '漸'의 일반적 의미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접근해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漸'은 흔히 '점점', '점차'란 副詞의 뜻과 함께 '물들이다', '적시다'라는 動詞의 뜻이 일반적 용법이다. 이를 기준으로 위의 기사를 풀이하면 '이런 신이함의 기록이 모든 篇을 점차 적시도록 한다'는 뜻으로의 풀이가 가능하다.

33) 李基白, 앞의 책, p.14 주 2 참조.
34) 三品彰英遺撰, 『三國遺事考證 上』, 塙書房, 1975, p.296 ; 김두진, 앞의 책, p.93.
35) 이기백, 앞의 책, p.14.

이럴 때의 '제편'은 자연히 기이편을 비롯한 모든 편목이 해당되거니와 동시에 神異함도 오로지 기이편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편에 끼치는 셈이 된다.[36] 이럴 때 신이함은 기이편을 필두로 해서 『삼국유사』 전편에 걸쳐 일관되게 흐르는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삼국유사』 구성으로는 기이편만의 서문인 듯이 설정되어 있으나 실제 내용상으로는 원래 전편의 서문을 겨냥해 작성되었을 공산이 크다. 일연이 생전에 그처럼 『삼국유사』 자체의 서문 용도로서 써둔 까닭에 뒷날 전체 서문을 굳이 따로 쓸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그럴 때 비로소 신이사관도 반드시 기이편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기보다는 전편에 흐르는 일연의 기본적인 역사 인식이라 진단할 수가 있겠다. 일연의 政治史와 佛敎史 인식을 아울러서 神異史觀이라 이름 붙일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신이사관으로부터 불교사 인식을 분리할 수 없음은 흥법 이하 전편에 그런 내용이 바탕에 흐르고 있는 데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현재의 기이편 서문은 처음 수집된 원고를 정리하고 편목을 분류하면서 이미 써두었을 가능성이 크다. 당시에는 未久에 완성될 『삼국유사』 전체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작성하였을 터였다. 그래서 하필 기이편에만 유난스레 서문을 붙였을 까닭은 없다. 그러므로 이는 전체를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봄이 순조로운 이해이다. 그러나 미완의 원고 상태로 남겨둔 채 일연이 사망하고 상당한 시일이 흐른 뒤 정식 간행을 위해 재정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왕력편이 가장 앞부분에 배치됨으로써 원래의 전체 서문이 마치 기이편에만 국한된 듯이 들어가게 것으로 여겨진다.

『삼국사기』가 유교적 합리주의사관에 입각해 편찬함으로써 신이한 내용이 담긴 적지 않은 자료들은 거의 배제되고 말았다. 역사를 보는 안목을 유교사관의 틀 속에 가두었을 때에는 삼국 이전으로까지 눈 돌릴 겨를이 생겨났을 리 만무하다. 그래서 『삼국사기』에는 삼국만을 다루었을 뿐 그 시원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래서 일연은 이를 비판하고 신이사관의 입장에

36) 이기백, 위의 책, p.47 ; 김두진, 앞의 책. p.94.

서 삼국시대사 전반을 재정리해나가면서 삼국 이전의 역사에 대해서까지 대상을 넓혔다. 다만, 신이함 자체가 황당하게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연은 널리 유관 자료를 동원해 실증하는 작업으로 논증하거나 현장을 답사해 실상을 설명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철저히 파괴된 황룡사의 현장을 직접 목도한 일연은 외침으로 어떤 결과가 빚어지는지를 절실히 깨달았다. 물론 그에 앞서 包山에 머물던 젊은 시절 몽골 침략으로 처절한 고통과 참상을 몸소 겪기도 하였다. 이런 현실이 일연의 신이사관에 크게 영향을 미쳤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겠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여러 차례에 걸쳐 몽골의 병란을 언급하고 있음은 그를 여실히 증명해준다. 이제 남은 문제는 앞으로 그에 대비하면서 철저히 극복해내는 일이었다.

고려국가가 몽골의 침략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근본 요인은 내부의 분열상에 있는 것으로 진단하였던 것 같다. 몽골의 파상적 공세에 직면하기 직전의 武人執政期에는 백제, 신라의 재건을 명분으로 내세운 반란이 각지에서 빈발하였다.[37] 이러한 국가 분립을 지향한 정치사회적 대립·갈등 국면이 엄청난 국력의 소모와 약화를 가져왔고 그것이 결국 외침을 견뎌내지 못하게 된 일차적 요인이라 간주한 듯하다. 그에게 당면 현실의 강포한 몽골 壓制를 벗어나기 위해서도 내부 결속은 필수적인 일이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삼국유사』에서 신라에 의한 삼국 통합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물론 『삼국사기』 이후의 분위기를 이어받은 데서 나온 것이기는 하였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분립을 완전히 극복해내는 근본적 해소책이 되기는 어려웠다. 거기에는 삼국에만 국한시켜서는 곤란하다는 일연 자신의 역사 및 현실 인식과 함께 당대의 분위기도 크게 작용하였다. 분립의 상태로 대결하던 삼국과 후삼국을 그대로 둔 역사를 고려국가의 源泉으로 삼는 한 언젠가는 또 다시 그것이 명분으로 내세워져 분립 지향의 움직임이 되풀이될 여지가 있었다. 일연은 이로써 기존처럼 삼국사의 정리 수준으로 그쳐서는 명

37) 민현구, 「고려 중기 삼국부흥운동의 역사적 의미」『한국사시민강좌』5, 일조각, 1989.

백한 한계가 뒤따른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사실 책명을 『삼국유사』라 명명하면서 모순되게도 삼국 이전의 역사를 내세우게 된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 유교사관은 물론 斷代史로서 『삼국사기』가 갖는 한계가 뚜렷하다고 인식하였다. 그래서 삼국에 공통하는 뿌리로서 그에 앞서는 역사를 새로이 정리할 필요성을 절감하였던 것이다.

일연은 삼국 이전 명멸한 일체의 정치체 관련 자료를 모아 일단 時系列로 정리하였다. 고려국가 자체 내부에는 아직 그런 정리는 물론 기초 자료도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국내에 잔존하는 古記類와 함께 각종 중국 측의 사서 가운데 삼국의 뿌리가 될 만한 단편적, 분산적 기록 일체를 찾아내어 가능한 한의 범위에서 망라해 재정리를 시도하였다. 대충의 시간적 순서로 열거해 제일 첫머리에다 「古朝鮮」조를 앞세웠다. 그 아래는 고조선 이후 삼국 이전까지 출몰한 것으로 보이는 정치체를 일괄 「고구려」조의 앞에 배치해 두었다. 이로써 삼국 이전의 역사는 엉성한 형태로나마 총정리된 것이었다. 최초의 한국 通史體가 탄생하였음을 알리는 순간이었다.

「고조선」조 이하 13개 항목을 「고구려」조의 앞에다 배치한 것은 단순히 시간 순서상으로 고조선과 고구려를 곧바로 직결시키지는 않으려 한 의도가 바닥에 깔린 것으로 보인다. 고조선과 고구려를 직접 연결시키려는 시도는 이미 고려 초기부터 있었던 것 같다.[38] 그러나 일연은 고구려를 고조선과 직결시키려는 고려 초기 이래의 주장이 있었고, 최치원의 주장처럼 마한을 고구려의 전신으로 보려는 입장까지 존재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조선과 삼국의 사이에 많은 정치체의 존재를 상정함으로써 결국 그것이 처음부터 분립의 상태가 아니었음을 강조하려 한 것이었다.

여하튼 삼국에 앞서 여러 정치체의 존재를 제시하고 그 시원으로서 고조선을 가장 먼저 배치한 것은 그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는 과감한 획기적 발

38) 『三國史記』17 高句麗本紀 東川王 11年條. 이미 『三國遺事』 王曆 高麗 東明王條에도 朱蒙(鄒蒙)이 壇君의 아들이라는 기록을 제시하고 있고 기이편의 「高句麗」조에도 『壇君記』를 인용해 주몽과 그런 실상을 엿보기에 충분한 근거이다.

상이었다. 일연이 처음으로 기도한 작업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삼국을 뛰어넘어 미흡하게나마 한국사 최초의 通史로서 체계화하려고 한 데에[39] 큰 의의가 있다. 사실 처음 『삼국유사』 편찬을 기획하던 당초부터 그런 의도를 가졌던 것인지 어떤지는 잘 알 길이 없지만 몽골의 파상적 침공과 지배에 따른 참상이 도중에 그를 촉발하는데 결정적으로 기능하였음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삼국유사』에서는 삼국 통일을 강조하는 일방 거기에 머물지 않고 국가의 연원을 한참 더 거슬러 올라가 고조선에서 그 뿌리를 찾았던 것이다. 고조선을 최초의 민족국가로, 檀君을 민족시조로서 승화시킴으로써 삼국의 뿌리도 거기에서 출발한 것이라 설정하였다. 과거 신라 통일기에 제시된 一統三韓의 논리가[40] 갖는 한계를 명확하게 인식함으로써 뿌리가 한층 더 오랜 淵源을 가졌음을 내세워 더 이상 삼국의 분립 주장과 같은 파국을 막으려 의도한 것이었다. 이를 통해서 고려인들로 하여금 역사나 국가의 유래가 중국과 대등할 정도로 유구함을 강조함으로써 몽골에 대한 문화적·역사적 자긍심도 아울러 갖도록 유도하려는 생각이었다. 거기에 작동해온 신이한 초월적 힘이 현실의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추동력으로 작용한다는 희구였다. 그런 점에서 일연이 역사 인식의 새로운 場을 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일연은 『삼국유사』의 편찬을 매개로 해 당면 문제를 극복하려는 강한 현실 인식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삼국사기』 등 기존 역사서에 내재한 한계를 직시하고 극복하려는 대안 제시의 차원에서 새로운 성격의 역사서를 편찬하려 한 것이었다.[41] 그것이 곧 삼국은 同類라는 意識을 뛰어넘어 원래부터 고조선이라는 국가와 단군이이라는 始祖神에게서 나왔다는 사실을 강조하려 하였다. 이런 인식이 어설픈 형태로나마 최초의 通史 편찬으로 수렴되었다.

사실 일연은 『삼국유사』를 편찬하면서 의도한 목표를 일정 정도 달성한

39) 이기백, 앞의 책, p.55.
40) 이에 대해서는 김수태, 「일연의 삼한·삼국통일론」『서강인문논총』43, 2015 참조.
41) 조동일, 「삼국유사의 기본특징 비교 고찰」『일연과 삼국유사』, 신서원, 2007, pp.14-19.

것으로 보인다. 고려 후기 이후 삼국의 분립을 명분으로 전면에 내세우는 내란은 완전히 사라진 데에서 뚜렷이 확인된다. 민족, 민족국가의 시원으로서 고조선과 단군 시조의 중시 인식 분위기는 조선 왕조로 그대로 이어졌다. 조선 왕조가 개창되어 和寧과 朝鮮이 국호 선정의 대상으로 떠올랐을 때 후자로 결정짓게 된 배경에는 『삼국유사』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짐작된다. 이후 조선 왕조 초기부터 단군 숭배 신앙이 대단히 활발하게 진행되어 箕子 숭앙을 능가할 정도의 수준이었음은 그를 입증하기에 충분한 사례이다. 이때에 최초의 편년체 통사로서 『東國通鑑』이 편찬된 데에도 『삼국유사』가 일정하게 영향을 미쳤음은 물론이다. 조선 왕조의 창업 초기로 엄청나게 緊迫하였을 와중인 太祖 3년(1394) 국가적 사업으로서 『삼국사기』와 나란히 『삼국유사』의 復刊 작업이 이루어진 데에는 그와 같은 사정이 주요 배경으로 작용하였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조선 왕조가 개창되자마자 뒷날의 유학자들로부터 荒唐無稽하다는 극단적 비판까지 받게 되는 『삼국유사』가 官撰이 아닌 승려 개인의 저술이 국가로부터 공인을 받는 순간이었다.

5. 맺음말

그 동안 『삼국유사』 관련 논고들이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이 나왔음은 다 아는 바와 같다. 그럼에도 우리의 『삼국유사』에 대한 이해가 아직 그리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단언하기는 곤란하다. 물론 역사는 끊임없이 재해석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삼국유사』를 다룬 論題가 엄청나게 많고, 또 성격이 크게 논란되고 있음은 그 만큼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할 만큼의 소재가 풍부한 데서 말미암는 일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 이를 둘러싼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 『삼국유사』가 갖고 있는 魅力이자 魔力이다.

이 글은 『삼국유사』의 편찬 배경이나 목적 등을 하나의 측면만으로서 접근해서는 불안함이 영원하게 남을 터여서 이를 뛰어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소박한 생각에서 기초해본 것이다. 이를 위해 일단 冊名, 體制, 內容의 셋으로 나누어 각각을 다룸으로써 일연의 역사 인식이나 편찬의 목적을 더듬어 보려 하였다. 그 결과 편찬에 작용한 계기나 목적이 그리 단순하지 않으며 매우 다양하게 얽히고설켜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일연으로 하여금 『삼국유사』란 새로운 사서를 편찬하도록 유도한 출발점은 『삼국사기』와 『해동고승전』 등 앞서 편찬된 서적들에 대한 불만이 주된 계기였다. 그렇지만 체제와 구성을 분석해 보면 단순히 불만 토로의 수준에만 머문 것이 아니었다. 일연의 삶 자체와 고려국가가 당면한 현실의 문제점 등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체제 전체에 걸쳐서 분산·표출되고 있었다. 내용의 밑바닥에 흐르고 있기도 하려니와 체제 편성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삼국유사』는 체제상 9개 편목으로 구성되었으나 성격상 크게는 두 그룹, 조금 더 세분하면 3개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각각은 정치사, 불교사, 그리고 개인과 현실 등이 반영된 부분들이다. 그렇지만 어느 편목인지를 굳이 가릴 필요도 없이 전체에 걸쳐서는 신이한 초월적 힘이 현실의 모든 난관을 극복하는 동력이란 인식, 이른바 신이사관이 면면히 흐르고 있다. 그런 인식 전반을 종합적으로 압축한 인식이 바로 '遺事'라 붙인 標題 속에 그대로 들어가 있다.

그러므로 유사를 책명으로까지 사용한 것은 기왕의 일반적 인식처럼 단순히 겸양의 뜻으로서 버린 것을 주워 모으겠다는 소극적 의미가 아니라 새롭게 남기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깃든 것으로 풀이하였다. 조선 왕조에 들어와서 국명의 확정, 단군 숭배의 고조, 정식의 통사 서술 등이 이루어지는 데에 『삼국유사』는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당시 『삼국사기』와 나란히 『삼국유사』가 공식적으로 복간된 사실은 그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라 하겠다.

※ 이 논문은 2017년 11월 1일에 투고 완료되어
2017년 11월 17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7년 12월 11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김두진, 『삼국유사의 사학사적 연구』, 일조각, 2014
金相鉉, 「海東高僧傳의 史學史的 性格」『藍史鄭在覺博士古稀記念東洋學論叢』, 1984
김수태, 「일연의 삼한·삼국통일론」『서강인문논총』43, 2015
金泰永, 「三國遺事에 보이는 一然의 歷史認識에 對하여」『慶熙史學』5, 1974
남동신, 「삼국유사의 사서로서의 성격」『불교학연구』16, 2007
리상호, 「삼국유사 해제」『삼국유사』, 1959
閔泳珪, 「三國遺事」『韓國의 古典百選』, 신동아, 1969
민현구, 「고려 중기 삼국부흥운동의 역사적 의미」『한국사시민강좌』5, 일조각, 1989.
윤선태, 「三國遺事의 後人夾註에 대한 再檢討」『한국고대사연구』78, 2015
李康來, 『三國史記典據論』, 민족사, 1996
이기백, 『韓國古典硏究-三國遺事와 高麗史 兵志』, 일조각, 2004
정병삼, 『일연과 삼국유사』, 새누리, 1998
조동일, 「삼국유사의 기본특징 비교 고찰」『일연과 삼국유사』, 신서원, 2007
蔡尙植, 『高麗後期佛敎史硏究』, 일조각, 1991
채상식, 『一然 그의 생애와 사상』, 혜안, 2017
崔南善, 「三國遺事解題」『三國遺事』, 民衆書館, 1946
崔柄憲, 「三國遺事에 나타난 韓國古代佛敎史 認識」『三國遺事의 綜合的 檢討』, 1987
三品彰英遺撰, 『三國遺事考證 上』, 塙書房, 1975

Abstract

Ilyeon's perception of history through Samguk Yusa

Ju, Bo-don

This essay is based on trying to trace the purpose, background, and historical perceptions of Ilyeon as a monk through the appreciation of the system, structure, and contents of『Samguk Yusa』. It is regarded to project personal life etc, this essay aims to divide it into chapters and argue with the awareness of the problem of the existing librarian that has already been compiled. As a result, among the total of 9 books, Wangryeok and Giie compiled『Samguk Sagi』, and Heungbeop compiled articles related to Buddhism in『Haedonggoseungjeon』and he speculated that the trajectory of his life permeated deeply in the last two books called Pieun and Hyosun. In that respect, it can be diagnosed as a unique cataloging. With that, the most eye-catching piece of the top part of『Samguk Yusa』is the book Tabsang. The pagoda and the statue of the Buddha, which are two central axes of Buddhist faith, are scattered widely and it shows the imagination as it is. Especially Gyeongju, which was the capital of Silla, showed lots of examples of these. Ilyeon spotted a large portion of the Silla object several times in the book Tabsang. Among them, Ilyeon's direct and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perception of history was Hwangryongsa, the center of Buddhism for country(護國佛敎), which was burned by

Mongols. This was the main background that caused 「Gojoseon」 to be put in the beginning of 『Samguk Yusa』. Soon after, the name of the Joseon Dynasty and the name of the reformed state are also closely related to this. In the early Joseon Dynasty, it is closely linked with the municipal government that『Samguk Yusa』 was reissued with 『Samguk Sagi』.

key word : Samguk Yusa, Ilyeon, perception of history, the book Tabsang, Samguk Sagi